

매일일보

HOME > 전국 > 인천·경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10일 파주 DMZ 일원 현장 방문

강세근 기자 | 승인 2020.11.12 03:24



기획재정위, 파주 DMZ 일원 현장 방문 (제공=경기도의회)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도정에 대한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10일 파주 임진각, 캠프그리브스, 도라산 평화공원 등 DMZ 일원을 현장 시찰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들은 먼저 DMZ 생태관광지원센터를 방문해 경기관광공사로부터 DMZ 관광사업 설명을 청취하고, 올 초 개장한 임진각 곤돌라를 체험 후 캠프그리브스 부지를 방문해 부지 활용 현황 브리핑을 받았다.

캠프그리브스는 1953년부터 2004년까지 미군이 주둔한 민통선 내에 유일한 반환 미군기지로 경기관광공사에서 문화재생사업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군사시설을 활용한 전시시설, 체험시설이 조성 중에 있다.

위원들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도라산 평화공원, 제3땅굴, 도라전망대, 캠프그리브스에 이르는 DMZ 일대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와 미군 공여지 활용 방안을 점검했다. 향후 기획재정위원회는 도정전반에 대한 폭넓은 현장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심규순 위원장은 “민통선 지역이 분단과 갈등의 지역에서 자유와 평화, 교류협력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며 “도의회 차원의 DMZ 관광활성화는 물론 평화사업을 위한 지원을 위해 기재위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지혜 의원은 “평화의 상징인 DMZ가 도민들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DMZ 사업이 앞으로 더 활성화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도차원에서도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도내 타 미군공여지 반환 사업도 신속히 마무리되어 도가 잘 활용할 수 있게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세근 기자